

## 第37回日韓・韓日議員連盟合同総会

### 共同声明

日韓・韓日議員連盟は2014年10月25日、大韓民国ソウルにおいて第37回合同総会を開催し、次の通り共同声明を発表した。

1. 日韓両国の議員連盟は、日韓両国が自由、人権、民主主義、市場経済などの基本的価値を共有しながら善隣友好関係を発展させてきたことを高く評価し、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る来年は両国関係が一層発展する飛躍の年になるよう努力していくこととした。

このため、日韓両国が歴史を直視しながら未来志向の関係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点で意を共にし、相互信頼に基づいて21世紀のパートナーシップ関係を深めるために日韓関係を早急に修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認識で一致した。

これに関し、日本側は1993年の河野談話、1995年の村山談話及び2010年の菅直人談話など歴代政権の立場を継承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

その上で、両国議員連盟は日韓首脳会談の早期実現に向けた環境作りのために努力していくこととした。

2. 両国議員連盟は、朝鮮半島の恒久的平和の定着と北東アジア地域の安定と繁栄のため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放棄と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の早期解決及び人権の保障に向けて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とした。

また、朝鮮半島信頼プロセスを通じた平和統一政策と北東アジア平和協力構想の実現を目指し、北東アジアの平和、安全と繁栄に向け、日韓関係の増進及び関係諸国間の緊密な協力が重要であることを再認識し、両国国会議員がそれぞれの政府に適切な措置を取るよう促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

3. 両国議員連盟は、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以来高まっている次世代エネルギー開発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にし、関連情報の共有及び協力体制を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

また、TPPなどについての経済情報の交換と科学技術交流の活性化を支援していくこととした。

4. 両国議員連盟は、歴史問題の象徴的な懸案である慰安婦問題において正しい歴史認識のもとで、当事者達の名誉回復と心の痛みを癒すことが出来るような措置が早急に取りられるように日韓双方が共に努力することにした。

さらに、両国議員連盟は、河野談話、村山談話の精神にふさわしい行動をとることとした。

両国議員連盟は、日中韓三国共同教科書実現のために両国の歴史教科書をそれぞれ相手国の言葉に翻訳して、参考書として活用すること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

同時に、幼・青少年スポーツ交流をはじめ文化、観光、スポーツ、メディア交流の一層の活性化に向け、両国の国会で立法及び予算確保に積極的に努力していくと共に、両国間の文化財問題の合理的解決に向け、積極的に努力していくこととした。

5. 韓国側は、日本の国会で、永住外国人に地方参政権を付与する内容の法案が迅速に成立されるよう日本側の格別な協力を要請し、日本側は法案の実現に向けて、今後とも一層努力することを表明した。

また、日韓両国の国会議員は日本内の一部地域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が両国の友好増進と在日韓国人の生存権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留意し、こうした街宣やデモを防止できる方策を模索していくこととした。

6. 両国議員連盟は、2015年の日韓国交正常化50周年が両国国民の友好を堅固にする機会とするため、両国の議会における決議案の採択を推進し、各分野における記念事業を推進・支援していくこととした。

更に、2018年の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と2020年の東京夏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成功に向け緊密な協力体制を構築するなど、支援策について協議していくこととした。

また、往来の頻繁な日韓航路の重要性に鑑み、船舶安全管理の改善に向け関連情報の交換等・実質的な協力方策を模索していくこととした。

7. 両国議員連盟は、日韓両国の善隣友好の絆であり歴史的な象徴である朝鮮通信使を日韓協同で世界遺産登録に向けて努力することにした。
8. 両国の議員連盟は、女性の活発な社会進出のためには、女性の継続就労策の具体化及び実行が喫緊の課題であると認識し、両国議員間の情報交流及び立法活動に相互協力していくことと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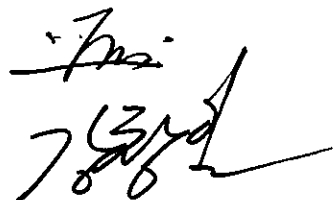
また、過去、全ての戦争において、女性の人権侵害があったことについて相当なる遺憾を表し、今後、未来においても女性の人権侵害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意見が合致した。

9. 日韓両国の議員連盟は、第38回合同総会を2015年に東京で開催することとし、その日程等については、同年ソウルで開催される合同幹事会議で決定することに合意した。

2014年10月25日

日韓議員連盟幹事長 河村建夫

韓日議員連盟幹事長 姜昌一



## 공동성명

2014.10.25

한일·일한의원연맹은 2014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37차 합동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양국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파트너십을 심화 시키기 위해 한일관계를 조속히 복원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측은 1993년 고노담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및 2010년의 칸나오토 담화 등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양국 의원연맹은 조속한 시일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2. 양국 의원연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포기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정책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을 목표로 동북아의 평화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한일관계증진 및 관련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양국 국회의원들이 자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양국의원연맹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대두되고 있는 차세대 에

너지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TPP등에 대한 경제정보 교환과 과학기술교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역사인식하에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도록 한일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일 양측은 고노, 무라야마 담화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 의원연맹은 한·중·일 3국 공동 역사 교과서의 실현을 위해 우선 한일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각각 상대국 언어로 번역하여 참고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청소년 체육교류를 비롯, 문화, 관광, 스포츠, 미디어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양국 국회에서 각각 입법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과 양국 문화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국측은 일본 국회에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히 성립되도록 일본측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일본측은 법안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 한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의원들은 일본내 일부 지역의 ‘헤이트 스피치’가 양국 우호 증진과 재일동포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 이같은 가두 데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국 의원연맹은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 국민들이 우호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양국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각분야의 기념사업도 추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과 2020년 동경 하계올림픽, 장애인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원책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왕래가 잦은 한일항로의 중요성을 감안, 선박 안전관리의 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교환과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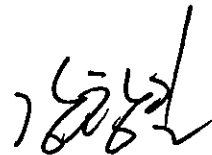
7. 양국 의원연맹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의 가교이자 역사적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한일 공동으로 세계유산등록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8. 양국 의원연맹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방안의 구체화 및 실행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양국 의원간 정보 교류 및 입법 활동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과거 모든 전쟁에서 있었던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미래에도 여성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한일 양국 의원연맹은 제38차 합동총회를 2015년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 등에 대해서는 같은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합동간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10월 25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강창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카와무라 타게오

